

A Study on the Birth, Confession and Death of Ānanda

Junyoung Jeo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Abstract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Bhikkhu Ānanda, who not only cared deeply for the Buddha and contributed to women's renunciation, bu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athering of the sutta.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approach the Ānanda, focusing on the Pāli Buddhist scriptures.

CONTENTS First, Ānanda's family history and time of birth are unclear. This study organizes various hypotheses through literature. Second, Buddha's death changed the status of Ānanda. Mahākassapa became the leader of Saṅgha, leading the First Buddhist Council. Although Ānanda undertook a massive task of memorizing sutta, he was punished by Saṅgha. He considered himself not to be at fault, but he was compelled to apologize in order to maintain Saṅgha's unity. There are also scenes where Mahākassapa rebukes Ānanda. Finally, His death is also inaccurate. According to the Pāli Commentary, He lived another 40 years on the premise that he was the same age as the Buddha. And if we deduce that King Ajātasattu watched Ānanda's death, He lived another 20 years after the Buddha's death.

RESULTS A search of the Pali literature on his life allowed a more specific approach.

KEY WORDS Ānanda, birth, confession, death, Mahākassapa, First Buddhist Council

^{*} **Corresponding to** Junyoung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E-mail : saddha@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아난다(Ānanda)의 출생, 참회 그리고 입멸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붓다를 극진히 모시고, 여성의 출가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비구 아난다를 다룬다. 특히, 빠알리 문헌을 중심으로 아난다의 출생, 참회 그리고 입멸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첫째, 빠알리 전통에 따르면 그는 아누룻다와 형제로 붓다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리고 복전에 따르면 그는 데와닷따의 형제로 붓다의 성도 해에 태어났다고 한다. 특히 아난다의 법납을 파악하기 위해 『테라가타』에서 밝힌 25년간의 시봉기간으로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붓다의 입멸은 아난다의 지위에 변화를 주었다.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한 마하까싸빠는 상가의 리더가 되었다. 아난다는 결집에 참여하여 경의 송출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로부터 별을 받았다. 『쑤라와가』는 아난다의 참회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상가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이라 인정했다. 마하까싸빠가 아난다를 질책하는 장면들 역시 등장한다.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 아난다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의도적 흠집 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난다의 입멸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빠알리 주석전통에 따르면 그는 120세까지 장수했다. 붓다와 동갑임을 전제로 40년을 더 산 것이다. 하지만 아자따삿뚜왕이 아난다의 입멸을 지켜봤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하면, 아난다는 붓다의 입멸 후 20년을 더 살았다는 설이 유력해진다.

결론 그는 붓다의 재세 시에도 열반 후에도 법의 보존과 상가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에 대한 빠알리 문헌의 검색은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주제어 아난다, 출생, 참회, 입멸, 마하까싸빠, 첫 번째 결집

I. 서 론

아난다(Ānanda, 阿難, 阿難陀)는 붓다의 10대 제자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불린다. 그는 누구보다도 붓다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기억하여 전해주었다. 특히, 붓다를 극진히 보필한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가에 크게 기여했고, 경전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빠알리 문헌에서 아난다라는 이름은 17명 정도 등장한다(M. III. 69f; A. II. 167; J. I. 30, 37, 207; J. V. 424; Ap. I. 227; MA, II, 889f; MA, I, 138; AA. I. 57, 100; AA. II. 550; AA. III. 158; DhA. II. 25, 49; Bu. 18, 18; Bu 19, 16). 본고는 붓다의 시자로 첫 번째 결집에서 경을 송출하고, 33 조사 중에 두 번째 조사인 아난다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붓다의 반열반 이후 90여일이 지나 마하까싸빠(摩訶迦葉, Mahākassapa)은 붓다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합송(合誦, 結集, saṅgīti)을 진행한다. 라자가하(王舍城, Rājagaha)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붓다의 설법을 결집하는데 아난다는 경을, 우빨리(Upāli, 優波離)는 율을 송출했다. 이것을 ‘첫 번째 결집’이라고 부른다. 붓다의 가르침이 최초로 확인 및 기록된 것이다(Jeong, 2009). 아난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첫 번째 결집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로 인하여 초기경전(Pāli-Nikāya)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아난은 마하가섭을 존중하여 승가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를 이어 부법 제2조사(付法 第二祖師)가 된다. 즉, 아난다는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막론하여 불교의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성인(聖人)이다. 하지만 그의 출생, 참회 그리고 입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먼저 빠알리 문헌 등을 통해 아난다의 출생을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나이 등에 대해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붓다의 입멸 후에 진행된 첫 번째 결집, 아난다의 상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마하까싸빠와 아난다와의 관계, 『줄라왓가』를 통한 5가지 악작죄 등을 통해 붓다의 입멸 후에 권력의 변화, 아난다의 수모, 그리고 상가(saṅgha, 僧伽)의 화합을 위한 그의 노력을 만나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난다의 입멸에 대한 자료들에 접근해 볼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아난다 연구는 주로 비구니 승단을 통한 여성의 지위 문제, 그리고 그의 참회 등을 다루고 있다(Hwang, 2007: 103; Won, 2016: 127). 아난과 가섭의 관계, 아난다의 나이와 출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북전(北傳)중심의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Shin, 1999; Youm, 2008, 2009).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빠알리 문헌을 통한 그의 출생, 참회, 그리고 입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ncyclopaedia of Buddhism*과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Kim, 2016: 7; Malalasekera, 1974: 249; Malalasekera, 1997: 528), 빠알리 문헌들을 탐색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할 것이다.

II. 아난다의 출생

아난다의 출생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빠알리 주석서 전통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석가족(Sakka) 아미또다나(Amitodana)로 붓다의 아버지인 쉣도다나(Suddhodana, 淨飯)왕과 형제이다. 『마노라타뿌라니(Manorathapūraṇi)』와 『수망가라위라시니(Sumaṅgala Vilāsinī)』에 따르면 아난다는 고타마 싯닷따(Siddhata)와 같은 날 태어났다. 주석서는 일체지 보살(一切智菩薩, Sabbaññu-bodhisatta)과 함께 태어난 7명 안에 아난다 장로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아난다의 형제로 아누룻다(Anuruddha)와 마하나마(Mahānāma)왕을 소개한다(AA. I. 292; AA. I. 189; DA. II. 425). 하지만 아난다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나타난다. 『마하바스투(Mahāvastu)』는 아난다의 아버지가 쉣도다나왕의 다른 형제인 수꼬다나(Śuklodana, 白飯)왕이라 설명한다. 동시에 쉣빠붓다(Suppabudha)왕의 아들인 데와닷따(Devadatta)의 형제로 소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난다의 아버지는 아미또다나, 수꼬다나 그리고 붓다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쉣빠붓다가 거론되고 있다(Mvu. III. 176). 이를 통해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의 전통적 흐름 안에서 아난다의 출생과 계보를 달리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난다의 나이와 출가에서도 나타난다. 근본설일체유부(Mūlasarvāstivāda)의 전통은 아난다의 출생을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날로 보고 있다. 즉, 붓다가 35세에 되던 해에 아난다가 태어났다. 아난다의 탄생이 붓다의 깨달음이란 기쁨과 동시에 일어났기에 ‘기쁨’, ‘즐거움’, ‘환희’의 의미를 지닌 아난다로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아난다의 출생과 출가에 대해 히라카와 아키라(Hirakawa Akira, 平川彰)는 빠알리 전통과 근본설일체유부의 주장을 통해 기준점을 찾아내려 시도한다.

“『테라가타(Theragāthā)』의 주석서에 따르면 아난다는 25년 동안 붓다의 시자였다. 만약 아난다가 비구가 된 직후에 붓다의 시자가 되었다면, 붓다의 입멸 때 그는 아마도 45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았을 것이다.”(Akira, 1990: 85)

붓다는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45년간의 설법, 그리고 80세에 입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가정대로라면, 아난다는 20살이 되는 해에 비구가 되어, 붓다가 55세가 된 해부터 시자를 시작했다는 계산이다(Mvu. III. 176). 히라카와 아키라의 상기 가정에 따르면 붓다가 아난다보다 35살이 많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Akira, 1991: 151 ; Cousins, 2012: 30). 정암은 붓다가 24~27살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Youm, 2008: 307; Youm, 2009: 210).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서, 아난다가 붓다와 같은 날 태어나, 붓다와 동갑으로 설명된 빠알리 주석서 『마노라타뿌라니』나 『수망가라위라시니』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아난다의 출가와 나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좀 더 이른 시기의 문헌인 빠알리 율장(律藏, Vinaya-Piṭka)으로 가보자. 『줄라와가(Cullavagga, 小品)』는 아난다의 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이듬해[6년 후의 견해도 있다], 성도 후 처음으로 까빨라왓투(Kapilavatthu)를 방문했을 때 아난다는 석가족의 왕자들과 이발사 우빨리와 승가에 귀의한다(Vin. II. 180; Malalasekera, 1974: 517). 이들은 밧디아(Bhaddiya), 아누룻다(Anuruddha), 바구(Bhagu), 김비라(Kimbila), 데와닷따(Devadatta), 그리고 이발사 우빨리(Upāli)를 포함하는 7인이다. 특히 석가족의 왕자들은 그동안 시종 역할을 했던 우빨리를 먼저 비구로 받아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우빨리를 선배로 만들어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므로 석가족이 지닌 자만과 교만이 낮아지기를 바랐다. 상가 안에서 붓다의 가족이라는 배경은 오히려 석가족이 지닌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뜻에 따라 붓다는 이발사 우빨리를 먼저 출가토록 하고, 후에 석가족 왕자들의 출가를 허락한다(Vin. II. 183). 아난다의 출가는 붓다의 성도 이듬해에 이루어졌고, 붓다로부터 직접 비구계를 받았다. 따라서 아난다는 적어도 붓다와 함께 태어났거나, 붓다의 방문 시에 20살이 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쿠타까니까야(Khuddaka Nikāya, 小部)』의 『테라가타(Theragāthā, 長老偈)』는 아난다가 25년간 붓다를 어떻게 모셨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는 25년간 유학(有學, sekha)으로 욕망의 지각(kāmasaññā)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르침의 핵심을 보았고, 분노의 지각(dosaññā)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르침의 핵심을 보았고, 사랑 가득히 몸으로(Mettena kāyakammena), 입으로(Mettena vacīkammena), 마음으로(Mettena manokammena) 세존을 모셨다(Thag. v.1039~1043). 이를 통해 아난다가 25년간 붓다의 시자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난다는 붓다의 입멸 이후에 무학(無學, aseka)이 된다. 본 계승을 통해 그는 출가하여 25년간 유학으로 살았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붓다의 성도 후 20년부터[붓다 55세] 25년간[붓다 80세까지] 독립된 시자 역할을 한 것이다. 본 계승의 25년이란 기간을 바탕으로 아난다의 출가 시점을 유추하기도 한다. 앞서 히라카와 아키라의 설명처럼, 이러한 기준을 역으로 계산하면 아난다의 출생을 붓다의 성도와 맞출 수 있게 된다. 성도 후 20년, 아난다가 출가했고[아난다 20살 이상] 바로 시자 역할을 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빠알리 율장을 기준으로, 아난다는 밧디아 등의 석가족 왕자들과 함께 출가했다. 붓다가[36세] 까빨라왓투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적어도 20세가 넘었어야 한다. 따라서 붓다의 성도 후 20년이면, 아난다가 붓다의 시자가 된 시점은 적어도 3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말라라세케라(Malalasekera)는 계승을 통해 유추한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아난다의 출가시점에 대해 다소 혼란이 야기된다. 경전에 따르면 그는 붓다가 상가를 구성한 2년 차에 비구가 되었다. 동시에 『테라가타』의 계승을 통해 스스로 25년간 유학으로 지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아난다는 붓다의 성도 이후 20년째가 되던 해에 상가에 합류한 것으로 결론짓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아난다가 데바닷따와 함께 출가했다는 기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위 계승은 아난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스승이 입멸하고 그는 여전히

유학임을 언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25년은 아난다가 붓다의 개인 시자로서 보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의 전체 출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Malalasekera, 1974: 268)

그는 아난다가 25년이란 시간 동안 붓다를 가까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며 스승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통해 아난다의 출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계승의 해석 문제를 제외하고 초기문헌에서 아난다의 출가 시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빠알리 전통 안에서는 붓다와 아난다가 동갑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헬무트 헤커(Hellmuth Hecker)는 아난다가 붓다의 개인시자가 되기 이전에도 출가자였음을 설명한다.

“아난다는 마하까싸빠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으며, 상가를 돌보도록 지명되었다. 그는 이미 40년 이상을 출가자로 살았고, 붓다보다 40년을 더 살았다. 붓다의 개인 시자로 25년을 지내다가 비슷한 기간 동안 으뜸이 되었다. 붓다의 마지막 열반 이후 100년이 지나 두 번째 결집 때에도 아난다의 제자가 살아 있었다. 그는 삼바까미(Sabbakami)라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출가 수행자였다. 아난다는 120년 동안 상가에 머물렀다.”(Hecker, 1980: 53, Shin, 1999: 256)

빠알리 문헌전통에서 아난다는 붓다가 상가를 구성한 2년 차에 석가족 왕자들과 함께 비구가 되었다. 그는 벨라따시사(Belatthasīsa)를 스승(upajjhāya)으로 모시고(Vin. I. 202), 뽀나 만파니뽀따(Puṇṇa Mantāniputta, 富樓那) 장로의 설법을 듣고 예류자(sotāpanna)가 된다(AA. I. 292). 그리고 붓다의 성도 20년 차에 개인시자로 선발되어 25년간 붓다를 극진히 모신다. 아난다의 정성 어린 시봉과 관련된 이야기는 경전 도처에서 나타난다. 아난다는 붓다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마실 물과 목욕을 준비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침들을 수용했으며, 만약 붓다가 병에 걸리면 아난다도 교감하여 아팠다. 그는 붓다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D. II. 99).

붓다 역시 아난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붓다는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유학으로, 그와 동등한 지혜를 가진 자는 쉽게 찾기 어렵다”라고 하며 아난다를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였다(A. I. 225; A. V. 225). 초기경전 안에서 아난다의 설법은 자주 나타난다. 특히, 『세카 숫까(Sekha sutta)』 등에는 붓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난다가 설법하는 내용이 나온다(M. I. 349, 353; M. II. 112). 『아난다뱃데까랏따 숫따(Ānandabhaddekaratta sutta)』에서 아난다는 비구들에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의 현상을 순간순간 관찰하라’는 유명한 설법을 한다. 그리고 붓다는 아난다의 설법내용을 극찬한다(M. III. 180; S. III. 133; A. II. 239). 이처럼 아난다는 유학이었지만 사부대중 모두로부터 인정받았다(II-A, 2019: 495). 물론 아난다에 대한 칭찬이 많이 담겨있는 경장(Sutta-Piṭka)이 아난다의 송출로 남

은 것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붓다의 칭찬이 담긴 경장과 달리 우빨리가 송출한 율장(Vinaya-Piṭka)에는 아난다의 문책과 참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III. 아난다의 참회

1. 첫 번째 결집

붓다의 입멸은 「마하빠리닙바나 쑤따(Mahāparinibbāna sutta, 大般涅槃經)」와 율장의 『쥘라와가』를 통해 구체화 된다(D. II. 162; Vin. II: 284). 일부 학자들은 『쥘라와가』의 11, 12장은 부록 일종으로 본래 율장에 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한, 『쥘라와가』의 11장은 다른 장과 달리 「마하빠리닙바나 쑤따」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며,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Winternitz, 1933: 25). 물론 차이점도 있는데 아난다(Ānanda)와 아누룻다(Anuruddha)가 말하는 계송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 아누룻다는 수행에 관련한 아난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율장 혹은 「마하빠리닙바나 쑤따」 일부가 편집될 당시, 아난다의 수행력이 높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결집 이후에 편집된 빠알리 문헌 안에서 아난다의 위치가 붓다의 재세 시절에 비해 낮아졌음도 알 수 있다.

“『디가니까야』의 열여섯 번째 경전에서 아난다는 빠리닙바나(Parinibbāna, 般涅槃)와 산냐웨다이 따니로다(Saññāvedayitanirodha, 想受滅)를 잘못 이해하였고, 아누룻다(Anuruddha)가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했다. 이는 『디가니까야』의 열여섯 번째 경전이 최종 편집될 당시에 아난다의 수행력을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프르질루스키[J. Przyluski]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한 군데 이상의 니까야에 아난다가 잘못 이해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이 신빙성을 높여준다.”(Jeong, 2009: 256 ; Pande, 2015: 189 ; Przyluski, 1926)

불교의 긴 역사 안에서 첫 번째 결집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Lee, 2001: 119; Tsukamoto, 1980: 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안에서 아난다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붓다의 입멸 전후를 막론하고, 남북방의 불교전통 모두에서 그의 기여를 크게 인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초기불교의 연구가 시작될 무렵, 유럽에서는 빠알리문헌에 대한 신뢰도와 아난다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했었다. 미나예프(Minayeff, I.P)는 첫 번째 결집의 결과를 두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경전의 편집본으로 보이는 것들은 부파불교의 발생 이후에 추가된 것이라 주장했다(Minayeff, 1894: 29). 듀트(Dutt)는 첫 번째 결집의 동기에 대해, 붓다가 열반에 들기 직전에 ‘소소한 계율의 실천을 폐지해도 좋다’고

하신 것을 결정하는 작업이었다며, [포살을 위한] 빠띠목카(Pātimokkha, 戒目) 회합이 확대된 것이 첫 번째 결집이라는 푸쟁(La Vallée Poussin)의 주장을 부연했다. 또한 아난다가 경을 송출했다는 내용을 후대에 아난다의 빠리수띠(pārisuddhi, 淸淨)에 추가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Dutt, 1941: 339). 이처럼 첫 번째 결집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들의 대부분은 유럽학자의 서구적 발상에 기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빠알리 문헌 간의 차이를 통해 1차 결집의 진위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시 그 문헌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조건을 성립하게 한다. 동시에 문헌 모두가 초기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교를 통한 접근 자체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 결국 어떤 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존하는 문헌을 가지고 문헌의 성립 이전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Jeong, 2018: 59).

마하까싸빠의 등장은 상가의 서열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율장의 『졸라왈가』와 『사만파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 따르면, 그는 상가 안에 나쁜 비구들이 스승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정법을 파괴하려 한다고 경고하고 법과 율의 합송을 제안했다. 비구들은 그에게 결집에 필요한 참여자들의 선정을 요구했고, 그는 499명의 아라한[無學]을 골랐다. 그가 한 사람을 부족하게 고른 이유는 아난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난다가 붓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웠기에 아난다 없이는 결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아직 유학이기에 결집을 함께 할 수도 없어 한 자리를 비워뒀음을 설명한다(Vin. II, 285). 이 설명을 들은 비구들은 마하까싸빠에게 비록 아난다가 유학이나 결집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마하까싸빠는 비구들의 동의를 거쳐 법과 율을 결집하기 위한 500명의 구성원을 결정, 장소는 라자가하, 시기는 우안거 기간으로 확정한다. 마하까싸빠가 라자가하 출신이고 붓다의 제자 대부분이 같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이미 상가의 주도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라자가하에 도착했을 때, 아자따삿뚜 왕은 결집을 위한 장소로 웨바라(Vebhāra)산 기슭의 칠엽굴(Sattapaṇṇiguhā)을 추천한다. 아자따삿뚜 왕의 지원으로 결집의 장소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비구들이 아난다에 대해 “이 결집에 어떤 비구가 비린내를 풍기며 다닌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비구들은 “당신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유학으로, 결집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열심히 정진하십시오”라고 전한다(VinA. I. 11). 아난다는 스스로 결집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밤새 몸에 대한 사띠(kāyagatāya satiyā, 身至念)로 정진하고 이제 누워야겠다며 누우려고 몸을 기울이는데,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 순간,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cittaṃ vimucci)했다(Vin. II, 285). 아라한[無學]이 된 아난다는 자격을 갖추고 첫 번째 결집에 참여한다. 결집의 순서는 율장을 시작으로 우빨리를 상수로 맞이한다. 이후 아난다는 법[經藏]의 상수가 되어, 법좌에 앉아 마하까싸빠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시작한다(Mhv. 35, Ch.3: Dpv. 11, Ch.5). 『브라흐마잘라수따(Brahmajālasutta, 梵網經)』와 『사만나팔라수따(Sāmaññaphala sutta, 沙門果經)』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는 결집에 참여하여 그가 위하고 있는 붓다의 말씀들을 모으는데 크게 기여했다.

2. 마하까싸빠와 아난다

결집 이후에 아난다는 상가로부터 벌을 받는다. 붓다는 입멸 시에 “아난다여, 내가 떠난 뒤에 상가가 원한다면 사소한 훈련계율(小隨小戒)을 지키는 것은 폐기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작은 실천사항들에 대한 폐기를 위해서는 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장로들 사이에는 그 범주와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었고, 상가 안에서는 사소한 계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마하까싸빠는 소소하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들지도 말고, 이미 있는 사항을 고치지도 말자고 결론 내린다. 그러자 장로 비구들은 아난다에게 5가지 문제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줄라와가』는 이 상황을 설명한다.

1. “벗이여(āvuso), 아난다여 그대가 세존께 사소한 훈련계율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것은 악작죄(dukkata, 突吉羅, 惡作罪)입니다.”
- “존자시여(bhante), 저는 주시(asatiyā)하지 않고 세존께 사소한 훈련계율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악작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자들께서 그렇게 믿으니 악작죄입니다.(Vin. II. 289)”
2. “벗이여, 아난다여 그대가 세존의 우기 옷(vassikasāṭikā)을 밟고 께맨 것은 악작죄입니다.” …
3. “벗이여, 아난다여 그대가 여인들에게 세존의 사리(sarīra, 屍身, 舍利)에 먼저 예를 갖추게 하여, 그녀들이 울다가 사리를 눈물로 적신 것도 악작죄입니다.” …
4. “벗이여, 아난다여 세존께서 충분한 표시(olārika nimitte) 충분한 밝힘(olārika obhāse)을 행하셨음에도, 그대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한 겹(kappa)동안 머무르십시오, 선서(sugato, 善逝)시여 많은 이익을 위하여, 많은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의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한 겹 동안 머무르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악작죄입니다.” …
5. “벗이여, 아난다여, 그대가 여인을 여래가 전한 법과 율에 출가시키려고 한 것은 악작죄입니다.” … (Vin. II. 287; Jeon, 2014: 1071; T.24(405b)). [번호, 괄호는 논자]

장로 비구들은 아난다를 꾸짖음에 ‘벗이여(āvuso)’라고 평칭하고, 아난다는 장로 비구들을 ‘존자시여(bhante, Āyasmant)’라고 존칭한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의 장로들이 아난다를 질책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아난다는 주시(sati, 念)를 놓쳐 세존께 사소한 훈련계율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것은 악작죄가 아니며, 자신이 악마에 마음이 사로잡혀(Mārena pariyuṭṭhita citto) 세존께 한 겹을 더 머무시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도 악작죄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스스로 상가 5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존자들께서(Āyasmant) 그렇게 믿으니 악작죄로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 붓다의 재세 시, ‘꼬삼비의 상가 분열(Kosambīsāṅghabheda)’로 잘 알려진 다툼이 있었다(Vin. I. 337). 어떤 비구는 자신이 행한 일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가의 비구들이 죄라고 주장하여 분열을 초래했다. 이때 붓다는 개인보다 상가라는

집단의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붓다의 입멸 후지만, 아난다는 붓다의 뜻에 따라, 상가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난다의 참회 내용은 뿌라나 장로(Purāṇo therā)의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아난다에게 죄를 물었던 장로들은 뿌라나에게 “벗이여 뿌라나여, 장로들이 법과 율을 결집했으니 이 결집의 내용에 따르십시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뿌라나 장로는 “벗들이여, 장로들이 법과 율을 결집했지만,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것을 수지 할 것입니다”라고 답한다(Vin. II. 290). 이러한 대화를 통해 뿌라나 장로의 무리들은 마하까싸빠가 주도한 첫 번째 결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빠까 목갈라나 숫따(Gopakamoggallānasutta)』에서 아난다(Ānanda)는 바라문 고빠까 목갈라나(Gopaka Moggalāna)와 왓사까라(Vassakāra)에게 붓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어떠한 개인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담마(Dhamma, 法)가 유일한 의지처(paṭisaraṇa)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담마는 경과 율이 아니라, 열 가지 빠사다니야담마(Pasādanīyadhamma, 믿음을 주는 법)라는 부연을 통해 이 시기 경율로 구성된 문헌이나 상가의 중심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붓다의 뒤를 이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마하까싸빠[왕사성파] 주도의 결집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M. III, 10f; S. V. 156).

아난다에게 주어진 악작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혼자서 바느질을 하는데 세존의 우기 옷을 뺀 것이 왜 잘못된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인이 울다가 세존의 시신에 눈물을 흘린 것이 오염이라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세존은 오염원에서 태어난 것인가. 붓다가 바라문 출신의 출가자들을 위해 모든 인간은 계급의 차이 없이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난다고 설하신 『악간나 숫따(Aggañña sutta, 世紀經)』를 잊은 것은 아닌지(D. III. 80). 네 번째는 마치 붓다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아난다가 요청했다면 세속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붓다에게 생명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아난다를 책망했다. 아난다는 악마의 마음까지 거론하며 사랑과 존경심으로 극진히 모신 붓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로, 붓다를 실망시키고, 상가로부터 질책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장로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붓다를 생명 연장이라는 세속적인 갈망을 지닌 자로, 동시에 스스로 솔직한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제자에게 에둘러 말하는 수준으로 실추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미 형성된 비구니 상가의 설립 배경을 죄로 묻는다는 것 역시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로들이 지적하는 아난다의 죄는 붓다의 뜻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잘잘못을 떠나 아난다 혹은 아난다의 무리[석가족]를 반대하기 위한 질책으로도 볼 수 있다(Pande, 2015: 104). 『상윳따니까야(Saṃyutta Nikāya)』의 『까싸빠상윳따(Kassapa saṃyutta)』에는 마하까싸빠가 아난다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특히, 아난다는 여든의 나이에 철없는 ‘어린애(kumāraka, 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마하까싸빠] “벗이여(āvuso), 아난다여 그런데도 그대는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는 신참비구들을 데리고 유행했던 말시오? 사람들은 그대가 곡식을 짓밟으며 유행하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는 신도집을 해치면서 유행하였다고 생각할 것이오, 벗이여, 아난다여, 그대의 회중은 부서졌고, 그대의 신참들은 떨어져 나갔소, 그런데 이 아이(kumāraka, 애송이)는 그것조차 모르다니!”

[아난다] “존자시여(bhante), 까싸빠여, 제 머리는 허영게 세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도 마하까싸빠 존자로부터 ‘아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Kakmook, 2009: 511; S. II. 218) [괄호는 논자]

아난다는 아이[애송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까싸빠에 대한 존칭[‘존자시여’]을 잊지 않는다. 마하까싸빠는 ‘벗이여’라고 칭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구니 툴라뎃싸(Thullatissā)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도출신의 마하까싸빠가 아난다를 대하는 것을 비난한다. 그리고 비난을 들은 마하까싸빠는 자신의 출가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동일한 경전에는 마하까싸빠가 아난다에 비교당하는 장면도 나온다. 마하까싸빠는 아난다의 요청에 의해 비구니들 처소를 함께 방문하여 설법한다. 하지만 비구니 툴라뎃싸는 “마하까싸빠 존자는 어찌하여 위테하의 성자인 아난다 존자 앞에서 법을 설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바늘장수가 바늘 만드는 사람 앞에서 바늘을 팔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하까싸빠는 붓다가 자신을 선정의 성취자로, 심해탈과 혜해탈을 얻은 자로, 신통을 얻은 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난다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아난다에게 질문을 하여 아난다 스스로가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답변하게 만든다. 아난다는 그 비구니가[여인이] 어리석었다고 사과하며 마하까싸빠를 달랬다. 상황을 파악한 비구니는 환속한다(S. II. 217).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 상가 안에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 간격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아난다는 그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도 알 수 있다. 특히 비구니의 힐난을 받은 마하까싸빠가 아난다를 대하는 모습은 교만 혹은 아상이 아닐까 의심케 한다(II-A, 2019: 508). 동시에 비구니 툴라뎃싸가 아난다에 경도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구니 상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아난다가 비구니들과 친분 혹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게 했다(SA. II. 176). 마하까싸빠와 아난다의 불화는 붓다의 재세 시절부터라고 보기도 한다. 어쩌면 라자가하 중심의 바라문 출신과 석가족 출신의 알력 문제라는 확대해석도 가능해 보인다(Shin, 1999: 260).

북전전승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오분율(五分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등에도 아난다에 대한 마하까싸빠의 질책이 나타난다(T.22(492a); T.22(191b); T.23(449b); T.24(404c)). 앞서 아난다에 대한 경장과 율장의 다른 분위기를 설명했다. 경장보다는 율장에 아난다의 문책과 참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 북전전승의 문헌에는 아난다의 악작죄에 대한 마하까싸빠의 질책도 나타난다. 즉, 아난다에 대한 질책은 경

장보다는 울장이, 그리고 남전 보다는 북전이 구체적이다.

IV. 아난다의 입멸

마하까싸파 이후, 아난다는 두 번째 수석 장로가 되었으며, 가장 존경받는 성자로 상가를 보호했다. 초기경전은 그의 입멸에 대해서 다루지 않지만, 남전의 주석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좌부 전통인 『담마빠다앗타까타(Dhammapadāthakatha)』와 『마노라타뿌라니(Manorathapūraṇī)』에 따르면 그는 120세까지 장수했다(DhA. II. 99f; AA. III. 129). 그리고 란스커즌(L.S. Cousins)은 아난다의 입멸을 붓다의 입멸 20년 후로(Cousins, 2012: 30), 헬무트 헤커는 붓다의 입멸 40년 후로 추정했다(Hecker, 2003: 182). 붓다의 반열반 이후 100년이 지나, 두 번째 결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아난다의 제자 삽바까민(Sabbakāmin)이 살아 있었다. 그는 구족계를 받은 지 120년 지났기에 세속나이는 14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Vin. II. 303). 즉, 아난다의 영향력은 첫 번째 결집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집으로 이어졌다.

마가다(Magadha)국 빔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따삿투(Ajātasattu)왕은 아난다가 마가다에서 웨살리(Vesālī)로 가는 길에 반열반에 들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수행원들과 로히니(Rohini) 강으로 향했다. 웨살리의 수장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불만족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아난다는 양쪽 모두가 강둑에 도달했을 때, 강의 한 가운데서[혹은 배 위에서] 화편(火遍, tejo-kasīṇa)의 수행상태로 들어갔고, 그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의 윤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양쪽으로 분리되었고, 그 자리에 탑을 지었다고 한다(DhA. II. 99f; Rockhill, 1884: 163).

“행함이 있고, 사떠를 지니고, 견고한 선인,
바른 가르침을 지닌 자, 아난다 장로는 보물이었다.” (Thag. v. 1049)

아자따삿투 왕이 아난다의 입멸을 목격했다는 것은 아난다의 입멸시기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이저(Wilhelm Geiger)는 『마하왓사』를 통해 붓다의 반열반 예상연도로 기원전 483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80년을 뺀 기원전 563년을 붓다의 탄생 예상연도로 설정한다(Geiger, 2011: 24). 타파 로밀라(Thapar Romila)는 아자따삿투의 즉위시점을 기원전 491년, 그리고 사망시점을 기원전 461년경으로 설명한다(Romila, 1966). 결국 아자따삿투왕이 아난다의 입멸을 지켜봤다는 것은, 기원전 483년에서 기원전 461년경의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산대로라면 아난다는 붓다의 반열반 이후 22년 안에 입멸한다. 따라서 붓다의 입멸 후 20년을 더 살았다는 설이 가능해진다. 앞서 란스커즌의 주장과 유사하다. 또한 붓다와 아난다가 동

갑이었으며 아난다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상좌부 주석전통에 따르면, 붓다의 입멸로부터 40년을 더 살았다는 헬무트 헤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V. 결 론

지금까지 아난다의 출생, 참회 그리고 입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빠알리 주석 전통에 따르면, 아난다는 석가족으로 아미또다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붓다와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형제로 아누룻다와 마하나마가 있었다. 그리고 북전에 따르면 그는 숫빠붓다왕의 아들이며 데와닷따의 형제로 설명되기도 했다. 그의 출생 역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날로 붓다와 35살의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테라가타』에서 스스로 밝힌 25년간의 시봉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해석이 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25년의 시봉기간을 그의 출가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100여년 전 유럽에서 진행된 첫 번째 결집의 진위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문헌을 가지고 문헌의 성립 이전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붓다의 입멸은 아난다의 지위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한 마하까싸빠는 상가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결집장소인 라자가하 출신이고, 붓다의 뛰어난 제자 대부분이 동향(同鄉)이라는 점에서, 그의 권한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난다는 경의 송출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집 이후 상가로부터 벌을 받았다. 남북전의 전승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졸라와가』는 아난다의 5가지 악작죄를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상가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죄라고 인정했다.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 아난다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의도적 흠집 내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마하까싸빠가 아난다를 질책하는 장면들이 보였다. 아난다에 대한 질책은 경장보다는 율장에, 그리고 남전 보다는 북전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경전은 아난다의 입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빠알리 주석전통에 따르면 그는 120세까지 장수했다. 붓다와 동갑임을 전제로 40년을 더 산 것이다. 하지만 아자따삿뚜왕이 아난다의 입멸을 지켜봤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하면, 아난다는 붓다의 반열 반 이후, 22년 안에 입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붓다의 입멸 후 20년을 더 살았다는 설이 유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생과 입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가능했다. 이처럼 아난다의 출생과 입멸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추적과정을 통해, 그가 붓다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그리고 붓다와 상가의 구성원들로부터 환대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붓다의 입멸 이후에도, 아난다는 가르침의 보존과 상가의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아난다에 대한 남북전의 전승기록을 사건별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 A : *Aṅguttaranikāya*, PTS(Pali Text Society).
- AA : *Manorathapūraṇī*, PTS.
- Akira Hirakawa (1990). *A History of Indian Buddhism: From Śakyamuni to Early Mahāyāna*.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kira Hirakawa (1991). *Early Buddhism and Abhidharma Buddhism*, Tokyo: Shunjusha Publishing.
- Ap : *Apadāna*, PTS.
- Bu : *Buddhavaṃsa*, PTS.
- Cousins L.S. (2012). “The ‘Five Points’ and the Origins of the Buddhist Schools.” *The Buddhist Forum Vol. II*. Berkeley: The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 D : *Dīghanikāya*, PTS.
- DA : *Sumaṅgalavilāsinī*. PTS.
- DhA. : *Dhammapadaṭṭhakathā*. PTS.
- Dpv : *Dipavamsa*, ed. Oldenberg.
- Dutt, Nalinaksha (1941). *Early Monastic Buddhism*. Calcutta: Calcutta Oriental Press.
- Geiger Wilhelm (2011). *The Mahavamsa or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 New Delhi: Asian Educational Services.
- Hecker Hellmuth (1980). *Ānanda, The Guardian of the 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Wheel Pub. No. 273/274.
- Hecker Hellmuth (2003). *Ānanda Guardian of the Buddha. Great Disciples of the Buddha*. Boston: Wisdom Pub.
- Hwang, S. I. (2007). South Asian Buddhism and Gender: The rise and fall of the Indian female Buddhist Sangha from the episode of Ānanda and Gotamī seen in the Vinaya tex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48, 103-124.
- J : *Jātaka*, ed. Fausboll.
- Jeong, J. Y. (2009). Theravāda Buddhism, Its Origin and Historical Milieu.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55, 203-245.
- Jeong, J. Y. (2018).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Pāli-Nikāya.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35, 49-74.
- Keisho Tsukamoto (1980). *Increased revision Early study of the history of Buddha*, Tokyo: Sankibo Busshorin.
- Kim, H. S. (2016). On the Scholarship of Two Outstanding Personalities, G.P. Malalasekera and

- K.N. Jayatillek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8, 7-47.
- Lee, J. R. (2001). The First Buddhist Council in the preface to Samantapāsādikā and Pāli Chronicles. *Journal of Buddhist textual studies*. 2, 119-164.
- M : *Majjhimanikāya*, PTS.
- MA : *Papañcasūdanī*, PTS.
- Malalasekera G. P. ed. (1974).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Vol.1.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 Malalasekera G. P. ed. (1997). *Encyclopaedia of Buddhism* Vol.1.(1961-1965) Colombo: The Government of Ceylon. The Department of Buddhist Affairs Ministry of Buddhasadana.
- Mhv : *Mahāvamsa*, PTS.
- Minayeff Ivan Pavlovic (1894). *Recherches Sur Le Bouddhisme*. Paris: White Lotus Press.
- Mvu : *Mahāvastu*, ed. Senart.
- Oldenberg, H. (1992). *The Dīpavamsa - an Ancient Buddhist Historical Record*. New Delhi: Gayatri Offset Press.
- Pande G. C. (2015). *Studies in The Origins of Buddhism*. 3rd.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 Pande G. C. *Studies in The Origins of Buddhism*. 정준영 옮김 (2019). 불교의 기원. 서울: 민족사.
- Przyluski, J (1926). *Le Concile de Rājagṛha, Introduction à l' Histoire des Canons et des Sectes Bouddhiques*.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 Rockhill W. Woodville (1884). *The Life of the Buddha and The Early History of His Order*.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mpany Limited.
- Romila Thapar (1966). *A History of India*, vol. 1, Penguin Books.
- S : *Samyuttanikāya*, PTS.
- Shin, S. H. (1999). The Relation between Kasyapa and Ananda in the Primitive Samgha. *Journal of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Bul Gyo Hak Bo)* 36, 253-269.
- T : 大正新脩大藏經.
- Thag : *Theragāthā*, PTS.
- Vin : *Vinaya Piṭaka*, PTS.
- VinA : *Vinaya Atthakathā*, PTS.
- Winternitz Maurice (1933).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 II. The Calcutta University Press.
- Won, H. Y. (2016). The Repentance of Anand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ors and Buddhists* 22, 127-143.

- Youm, J. S. (2008). A Consideration on the Age of Ānand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19, 291-322.
- Youm, J. S. (2009). A Consideration on on pravrajyā of Ānand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23, 183-220.
- 각목 옮김(2009). 상윳따니까야, 2권, 초기불전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kmook. (2009). *Samyutta Nikāya*. Ulsan: Early Buddhist Text Research Center.
- 일아 (2019).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서울: 불광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Il-A. (2019). *Where and to whom did the Buddha teach*. Seoul: Bulgwang pub.
- 전재성 옮김(2014). 쥘라왓가-울장소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Cheon, J. S. (2014). *Culla Vagga*. Seoul: Korea Pali Text Society.